

강임준 군산시장, 국가예산 확보 구슬땀

군산사랑상품권 지역주도형 경제활성화 성공모델 정착 등 건의

강임준 군산시장이 국회 심의기간 동안 내년도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연일 끈공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강 시장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5일 국회를 방문한데 이어 12일 중앙부처(행정안전부)와 국회를 방문해 2019년도 국가예산사업에 대한 증액과 삭감 방지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활동은 고용 및 산업위기 지역인 군산시의 경제회복을 위한 대응 방안으로, 내년도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국비 반영을 요청하기 위함이다. 이날 강임준 시장은 먼저 행정안전

부를 방문 군산사랑상품권이 발행되면서 매출상승 요인이 없는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액이 상승되고 있는 점과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는 상황을 강조하고 내년도 국비 200억 추가 지원을 통해 군산사랑상품권을 지역주도형 경제활성화 성공모델로 정착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국회를 방문해 군산사랑상품권 추가발행 요청(200억)과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100억), 새만금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70억)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농해수위 소속 박주현과 정운천 의원을 만나 군산시 학교급식시

원센터 확장 구축지원 사업(31억)과 수제 맥주 청주 특화거리 조성사업(35억), 어청도 노후여객선 고속차도 선 대체건조(60억)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을 방문해 동백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30억)과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조성사업(680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관영 국회의원을 만나 군산시 주요 현안사업과 국회 단계 예산 확보 진행상황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으며, 예결위 대응 전략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도 진행했다. 강 시장은 취임 이후 군산시의 어

려움을 직접 호소하고 정부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국회 및 정부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막바지 국회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해 마지막까지 사업의 당위성을 피력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군산 경제가 파탄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국가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고용 산업위기 지역인 군산시에 단 한건의 추가 예산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정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이리역 폭발사고 41주기 추모 성료

익산역 광장에서 폭발사고유족회 회원 등 150명 참석

코레일 전북본부는 지난 11일 익산역 광장에서 이리역폭발사고유족회 회원과 추모사업회 회원, 정현을 익산시장, 이춘석 국회의원, 김진준 코레일 전북본부장 등 각계 인사와 15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리역 폭발사고 41주기 추모행사'가 개최되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리역폭발사고희생자추모사업회와 (사)한국백제문화민속예술연합회의 주관 하에 시행되었으며, 추모탑 헌화를 시작으로 추모사, 종교단체 추모제, 추모의 시 낭송 등의 1부 행사와 부정거리 및 독축, 씻김, 김달을 등 (사)한국백제문화민속예술연합회의 전통문화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김진준 전북본부장은 유족회

회원들과 함께한 오찬에서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폭발을 막기 위해 현장에서 뛰어다녔던 많은 철도선배님들이 그 자리에서 순직하셨다."며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받아 더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 전북본부는 이리역 폭발사고 41주기를 맞아 이리역폭발사고희생자추모사업회와 함께 익산역 구내에 있는 추모탑 주변에 푸른 울타리와 나무를 철거하고 바닥을 확장하는 등 추모탑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하였으며, 추모행사를 위해 직원주차장을 개방하고, 추모탑에 국화꽃을 비치하는 등 추모식 행사를 적극 지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 서울지역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지자체 선정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는 2019년도 서울지역 친환경농산물 공급 지자체로 선정되는 패거리를 이뤄냈다.

12일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서 모집한 '2019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에 남원시(남원원협)와 함께 선정돼 서울시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

급하게 됐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서 서울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생산자단체를 모집했으며, 이를 위해 군산시(우리농협조합법인)는 안정적인 물량 확보 및 공급을 위해 남원시(남원원협)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참여했다.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평가

를 거쳐 공급역량, 재료 안전성 등 종합 심사를 통해 우리농협조합법인과 남원원협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전라북도 생산자단체에 최종 선정됐으며, 이에 따라 2019년도부터 3년간 매년 재계약 방식을 통해 서울시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게 됐다. 김병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서울시 은평구와 맺은 도농상생 공급계약에

이러 골목활판한 패거리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판로 구축 및 안전한 먹거리의 지속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라북도에서 공급한 서울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양곡 제외)은 345톤(약 17억)이며 이는 서울시 학교급식 공급량 중 5.4%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2019년도 서울시 학교급식에 전라북도 공급량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상견례 추진

익산시와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지부장 신동범)이, '2019 임금 및 단체교섭 협의를 위한 상견례'를 했다.

노사 간 상생과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금 및 단체교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상견례는 지난 9일 시청 회의실에서 정현을 익산시장, 신동범 지부장 등 노사 양측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간 소통하고 협력하는 분위기에 교섭대표 인사를 인사, 간담,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간 상호 이해와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상생의 협력적 노사

문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신뢰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견례를 시작으로 익산시와 익산시공무원노조가 상호 협력하는 관계임을 확인하고 다가오는 실무교섭에 있어서 진정성 있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양측에 발전적인 협약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익산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 설립된 이래 현재 195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한해를 마무리 하는 제2차 정례회를 12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12일 제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10건, 동의안 7건 등 17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는 시에서 제출한 2018년도 마스터 추경과 2019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실시한다.

김경구 의장은 "집행기간에서 제출한 각종 자료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에 내실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중신 의원은 고품화 사회로 작어드는 만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배형원 의원은 귀중한 해저유물 등 문화유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못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대학과 전문가 및 주민 등이 참여하는 해양문화유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경민 의원은 현 세무서 부지를 활용해 민선6기부터 추진해 온 서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을 추진과 소통1통 재해위험지구 부지를 낮추는 공인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의 모습.

으로 시민이 활용하고 저녁시간에는 제포장마차거리를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어 내기라고 제안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간담회

군산시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경로당 등 취약계층의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9일 읍면동 경로당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청 민방위상황실에서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등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구매 및 유지관리 계약을 하는 사업으로서, 약 510여개소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주기적 전문적인 관리로 실내 공기질을 개선해 어르신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간담회를 통해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및 계약체결 방법을 안내하고 사업 추진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의한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요즘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폐건전지 종량제 봉투 교환

군산시가 폐건전지 분리배출 활성화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원순환 실천을 유도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폐건전지 집중수거'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11월부터 폐건전지 40

개를 모아오면 종량제 봉투 1장으로 교환해 주는 폐건전지 종량제봉투 교환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건전지를 분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해 매립할 경우 수은,

망간 등 인체에 위험한 성분이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건전지를 분리해 배출하면 환경오염을 줄이고 철, 니켈, 망간 등 유용한 금속자원을 얻을 수 있다. 시민들이 폐건전지를 모아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하면 랜턴건전지 4개는 10L 종량제봉투 1장으로, 랜턴건전지를 제외한 AA,

AAA 등의 건전지 40개는 10L 종량제 봉투 1장으로 교환해 준다. 진희병 자원순환과장은 "폐건전지가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만큼 반드시 분리배출 되어야 하며, 많은 시민들이 교환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사 **하지원**